

청년들, “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복지와 유연한 근무 환경”

- 필수적 복지제도로 금전적 지원보다 특별휴가·유연근무 선호
- 직무와 ‘적성 및 흥미’의 일치 여부가 가장 중요, 절반은 직무전환도 고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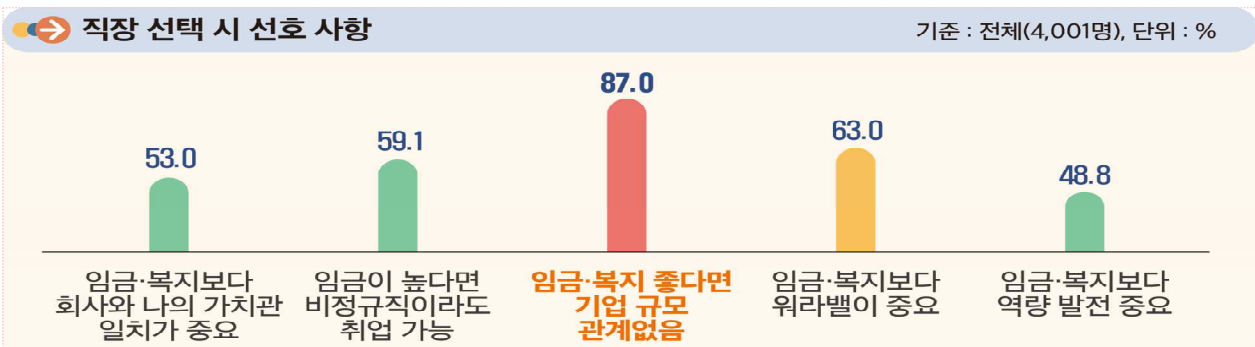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11.5.(화) 「'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4.7.12.~7.31. 전국 17개 시도 청년(19세~34세) 4,001명*에게 직업관, 직무 관련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조건 등에 대해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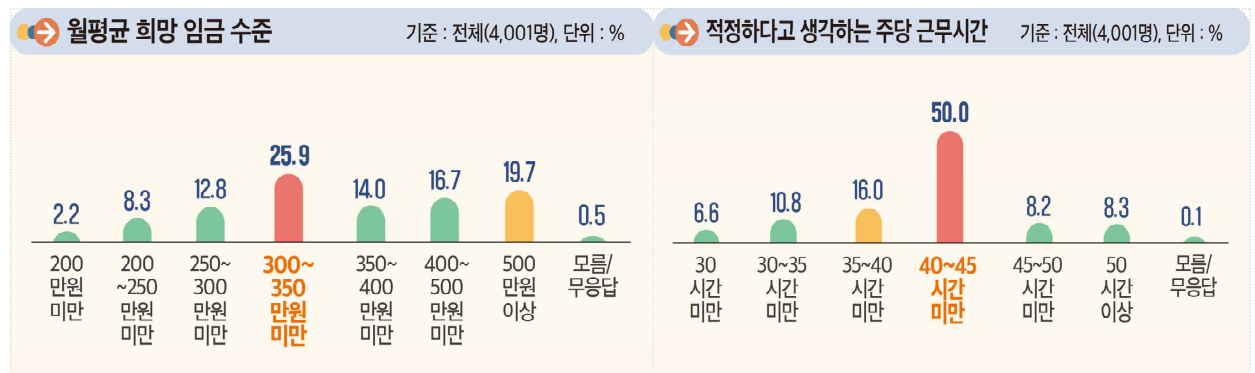
* 응답자(4,001명)는 '1회 이상 직장경험 있는 구직자' 또는 '현재 재직자(2,738명)'임

❖ 기업 규모보다 임금·복지,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

조사 결과, 청년 대다수(87.0%)가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63%가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며, 59.1%는 직장 선택 시 임금을 고용형태보다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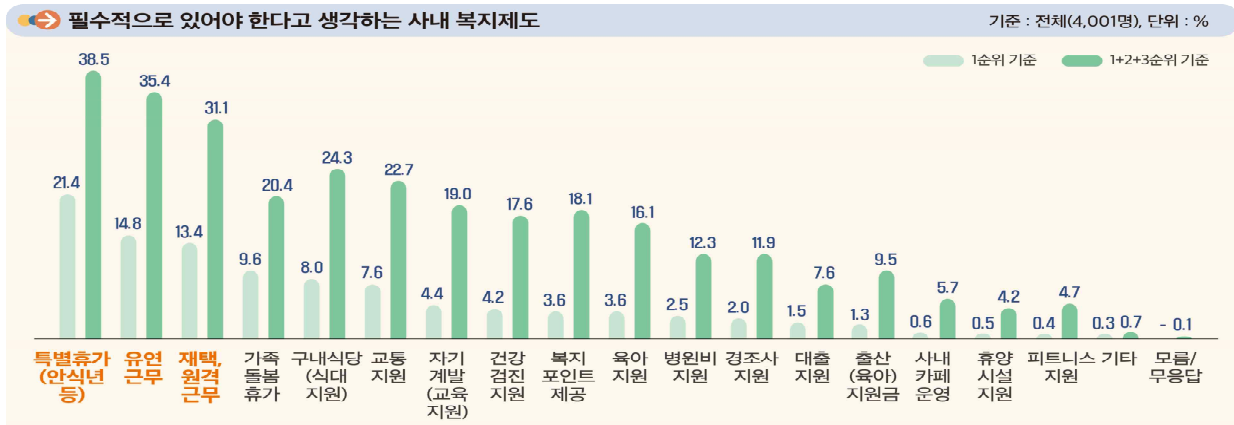
희망 임금수준은 ‘300~350만원’(25.9%)이 가장 많은 가운데, 76.3%가 ‘300만원 이상’을 원했다. 적정 근무시간은 ‘40~45시간 미만’(50%)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특별휴가’·‘유연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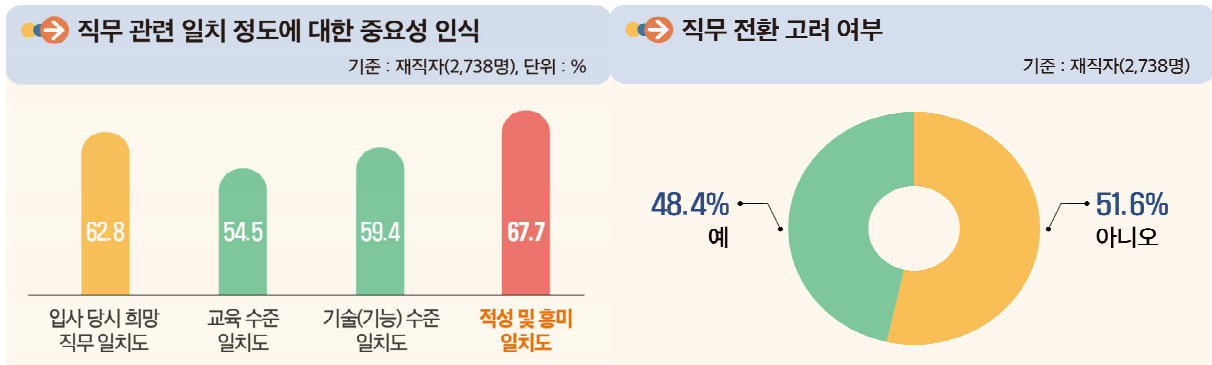
필수적 복지제도를 묻는 질문에, ‘특별휴가’(38.5%, 복수응답),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가 금전적 지원(병원비·경조사비·대출지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엠지(MZ) 세대라고도 불리는 청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와 같이 일하는 데 있어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적성·흥미에 맞는 직무를 원하며, 현재 직무전환을 고려한다는 응답 많아

직무 수행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적성 및 흥미’(67.7%)가 ‘교육 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직무 전환 고려 여부 질문에 48.4%가 ‘직무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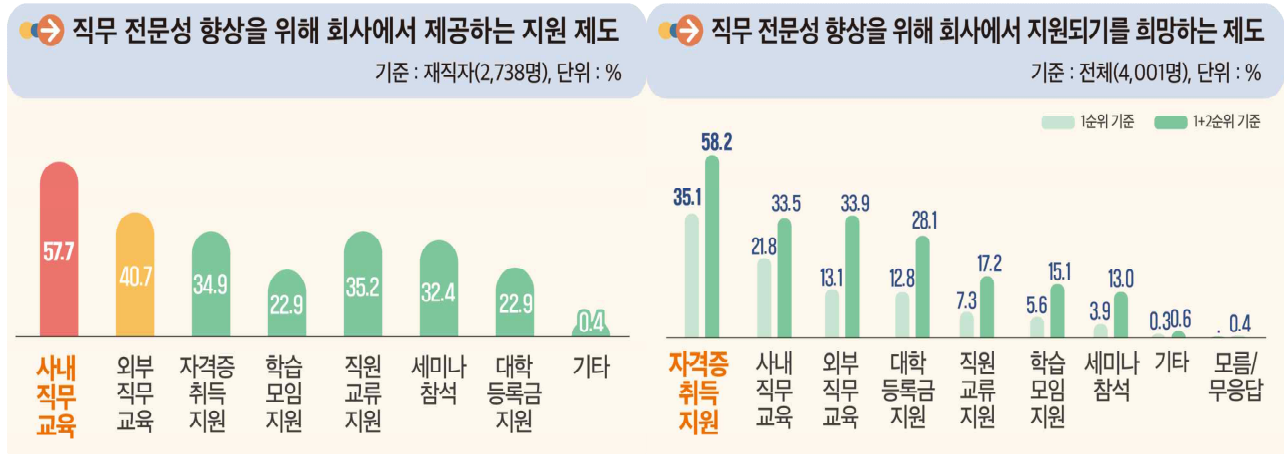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 전에는 취업진로 상담, 일경험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충분히 탐색하도록 하고, 취업 후에는 기업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경력개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사는 사내직무교육을 가장 많이 제공하지만, 청년은 자격증 취득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

<청년이 원하는 제도>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재학 단계부터 학생들이 수시·경력직 채용에 맞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년에 120개 대학으로 확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청년들이 시간과 공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영진 (044-202-7432)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신경숙 (044-202-7439) 김승주 (044-202-7399)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생애경력개발연구팀	담당자	전임연구원	이주현 (043-870-82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24.上 「채용동향조사」 개요

- (조사시기) '24.7.12.~7.31, (조사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
*1회 이상 직장 경험 있는 구직자 또는 현재 재직자(2,738명)
- (조사내용) 직업관, 현재 일자리, 직장/직무 만족도, 이직관련, 교육·훈련/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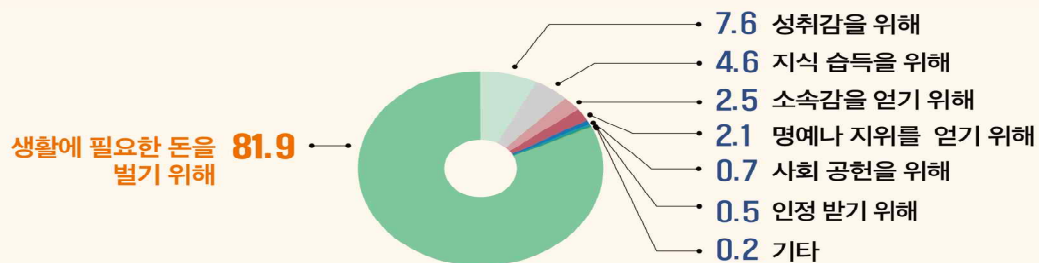
□ 일의 목적

- 청년에게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하여'가 81.9%로 경제적 목적이 가장 큼

*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 위하여'(7.6%),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하기 위하여'(4.6%), '집단에 속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2.5%) 순으로 나타남

➡ 일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기준 : 전체(4,001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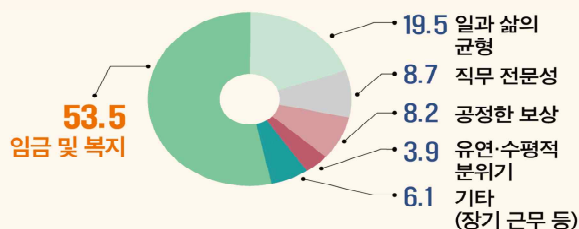
□ 좋은 일자리

-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기준은 '임금·복지'가 69.2%(복수응답 기준)로 가장 중요하며, '일생활 균형'도 51.2%로 높은 비중

* '직무전문성'(21.7%), '공정한 보상'(21.6%) 등도 좋은 일자리에서 중요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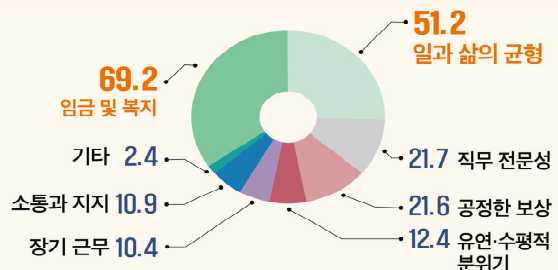
➡ 좋은 일자리(직장) 기준 - 1순위

기준 : 전체(4,001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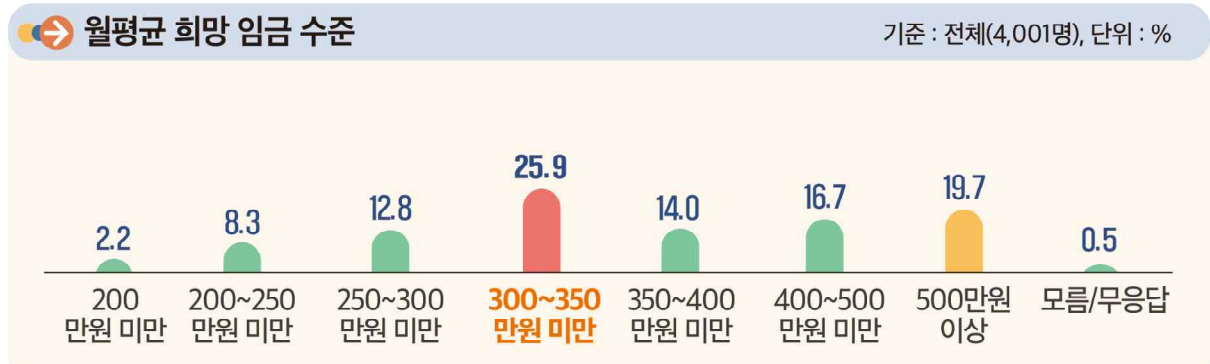


➡ 좋은 일자리(직장) 기준 - 1+2순위(복수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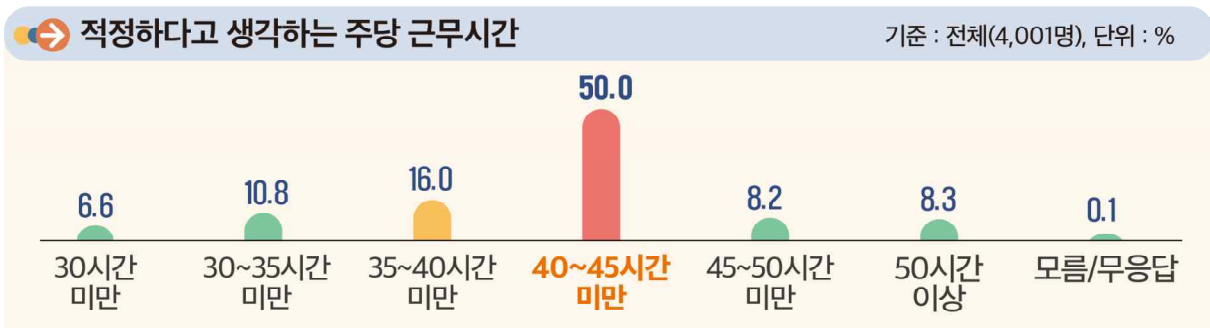
기준 : 전체(4,001명), 단위 : %



- (희망 임금) 청년의 희망임금(세후 기준)은 '300~350만원'이 25.9%, '500만원 이상'이 19.7% 순으로, 전체적으로 76.3%가 '3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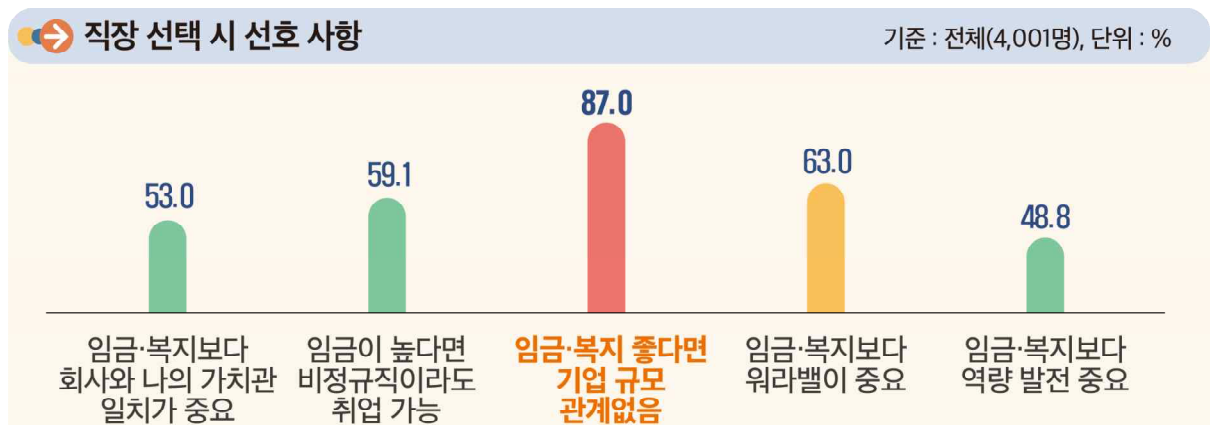


- (적정 근무시간) 적정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40~45시간'으로 응답하였으며, '35~40시간'(16.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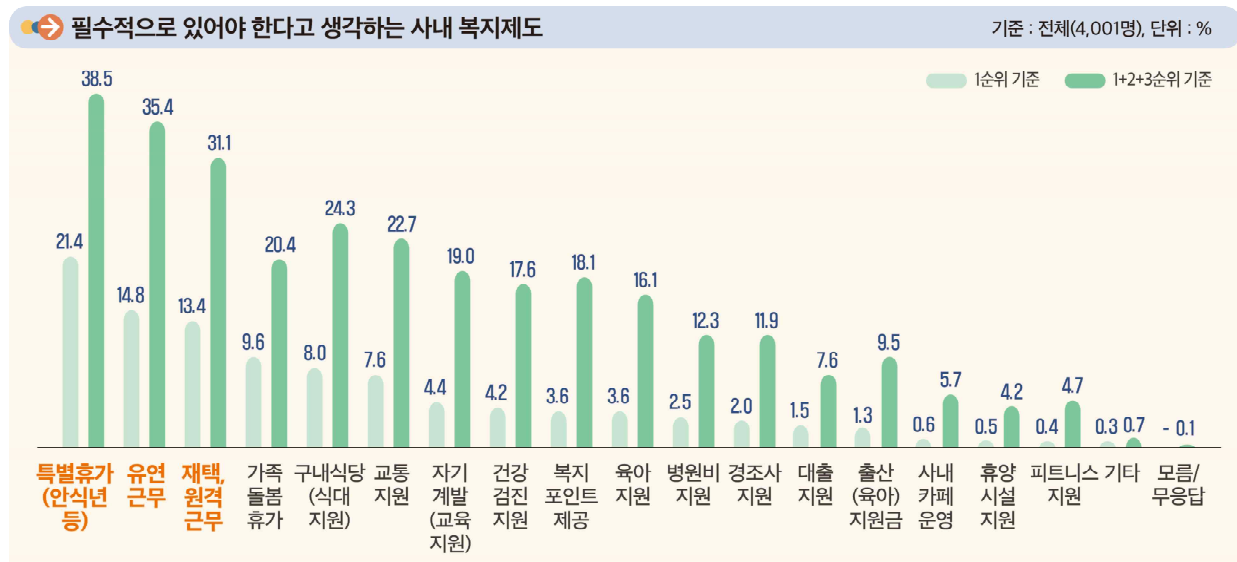
□ 직장선택 시 선호 사항

-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87.0%가 응답하였으며,
 -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63.0%), '임금이 높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생각이 있다'(59.1%)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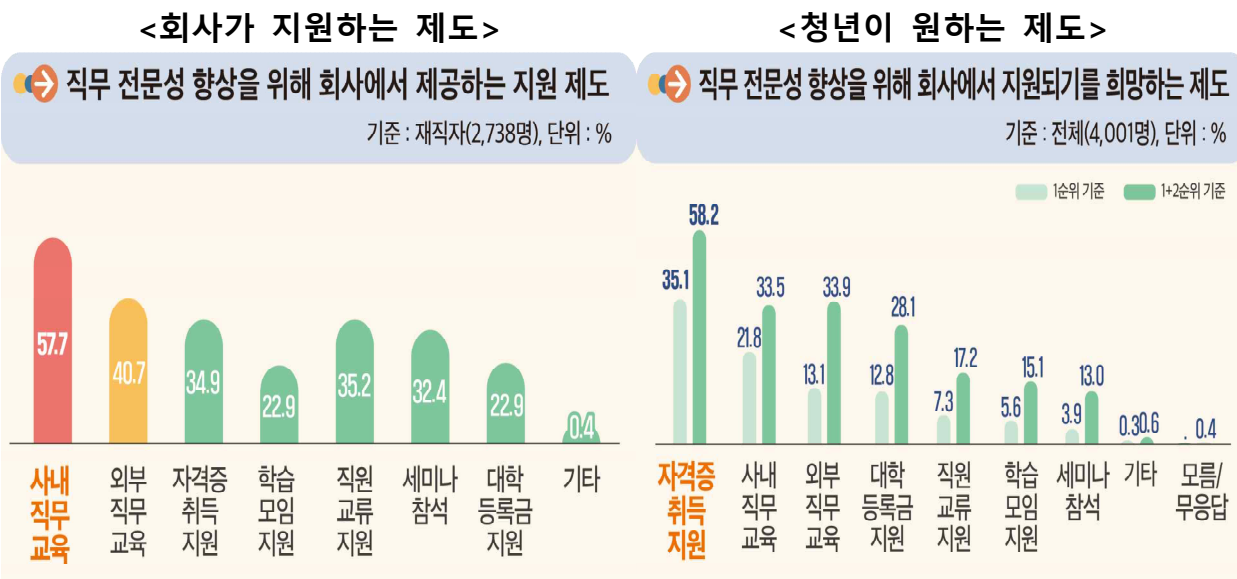
□ 필수적 복지제도

- 청년이 생각하는 필수적인 사내 복지제도는 '안식년, 장기근속 휴가 등 특별휴가'(38.5%)가 1순위였으며, 다음으로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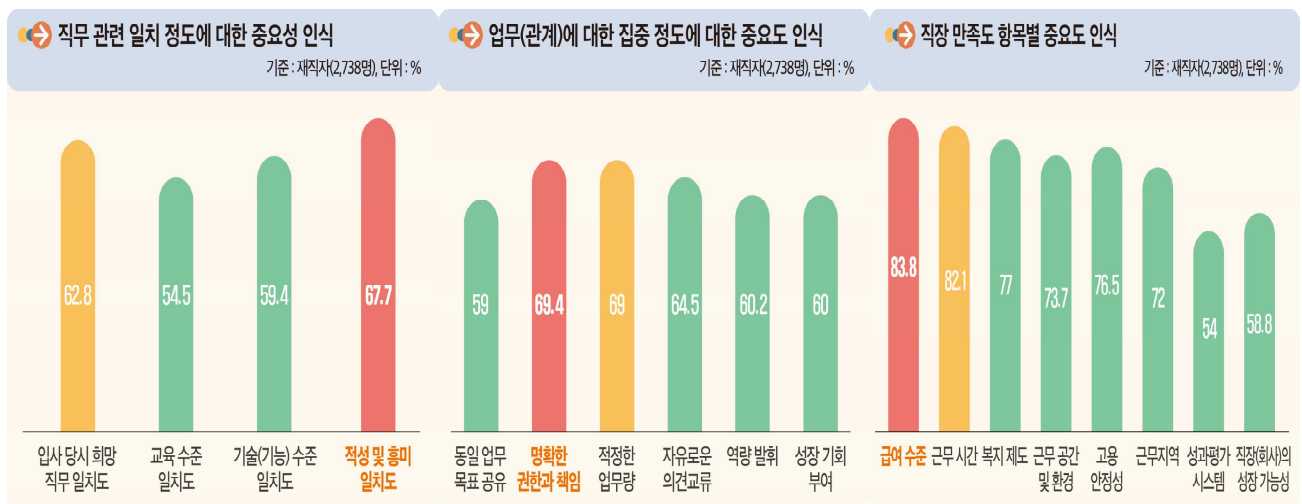
□ 교육 · 훈련 프로그램

-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사내 직무교육'(57.7%), '외부 직무교육'(40.7%), 직원교류 지원(35.2%),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34.9%) 순
- 이와 대비하여, 청년 희망은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58.2%), '외부 직무교육'(33.9%), '사내 직무교육'(33.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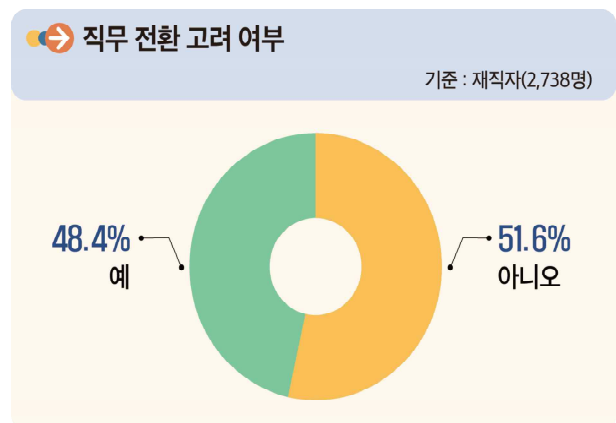
□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항목

- 직무와 일치해야 하는 것: 적성·흥미에 맞는 직무가 교육수준, 기술수준 부합 여부보다 중요
- 업무 집중에 필요한 것: 명확한 권한과 책임, 적정 업무량이 집중도 향상에 가장 중요
- 만족스런 직장: 임금, 근무시간, 복지제도 순으로 중요하며, 성과평가 시스템이나 직장의 성장 가능성은 후순위



□ 직무전환 고려 여부

- 재직 청년의 48.4%는 '직무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응답
 - 30대 미만 재직자는 49.6%, 30대 이상 재직자 47.0%
 - 재직기간 3년 이상자 49.6%, 3년 미만자 47.4%로 직무전환 고려



참고2

응답자 현황(청년 인적구성, 거주지역 등)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01	100.0
성	여성	2,123	53.1
	남성	1,878	46.9
연령	30대 이상	1,783	44.6
	30대 미만	2,218	55.4
재직 여부	재직자	2,738	68.4
	비재직자	1,263	31.6
거주지_권역	서울	1,002	25.0
	경인권	1,387	34.7
	충청권/강원	495	12.4
	전라권/제주	333	8.3
	경상권	784	19.6